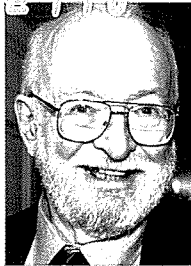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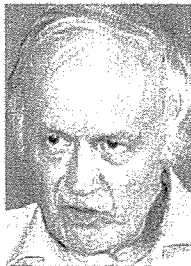


노벨물리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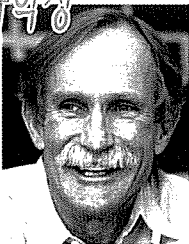


▲아브리코소프  
긴즈부르크  
레깃



▲로터버  
맨스필드

노벨화학상



▲피터 아그리  
로드릭 매किन

2003년  
노벨상 수상자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노벨상 수상위원회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치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의 폴 로터버 박사(74)와 영국의 피터 맨스필드 박사(70)를 올해 노벨 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이들이 자기공명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해 신체 장기와 같은 구조물들을 영상화하는데 필요한 아주 독창적인 발견을 했다”면서 “이 발견은 의학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로터버 박사는 1973년 자기장의 세기를 달리해 인체에 쓰는 방법으로 세포의 핵에서 방출하는 신호를 2차원적인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개발했고, 맨스필드 박사는 자기장에 공명하는 세포의 신호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해 장기의 모양 등을 영상화하는 MRI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 물리학상 수상 위원회는 초전도 및 초유동 이론 정립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재직중인 러시아계 미국인 알렉세이 아브리코소프(75)와 일리노이대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영국계 미국인 앤서니 레깃(65), 모스크바의 레베데프 물리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러시아인 비탈리 긴즈부르크(87)를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긴즈부르크는 자기력이 물체의 표면에만 작용하는 제1종 초전도체에 관한 이론을 정립했으며, 아브리코소프는 이를 발전시켜 자기력이 물체의 내부까지 침투하는 제2종 초전도체에 관한 이론을 규명했고, 레깃 교수는 이들 두 과학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여 1970년 대에 초유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원자의 상호작용 이론을 정립했다.

또, 노벨 화학상 수상 위원회는 미 존스 홉킨스의대 생화학자 피터 아그리(54) 교수와 미 록펠러대 하워드휴즈 이학연구소 분자신경생물학과 로드릭 매किन(47) 교수를 200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그리 교수는 1988년 세포막에서 ‘물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분리해 내는데 성공했고, 매किन 교수는 1998년 세포막에서 칼륨 이온 통로에 대한 입체구조를 밝혀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㉔